

변모하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建築家の 課題

朱 鍾 元

建築家は 英語로 architect라고 하며 그 語源을 풀이 하면 技術者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果然 建築家が 技術者의 長으로 일하고 있으며 社會的으로 그 만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할 必要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數年間에 急速度로 成長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變化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建設業分野의 業務는 상상할 수 없을 程度로 增加하였다. 即 國內에서는 國土가 改造되고 고속도로가 建設되어 全國이 1日生活圈化하고 있으며 적격인 立地를 選定하여 工業團地로 開發하고 있다.

그리고 工業化에 따라서 都市化가 促進되어 大都市의 肥大현상은 人間の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科學文明이 發達함에 따라 人間은 機械의 노예로 화하고 있다고 한탄하였지만 오늘날 人間은 自己가 建設하고 있는 都市의 노예로 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即 都市가 巨大해짐에 따라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고 駐車場 公害 등 여러가지 문제가 人間の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시에서 發生하고 있다.

더우기 建築技術이 發達하고 경영의 合理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肥大해지고 있는 大都市에서 高層化와 高密化가 되고 있어 人間の인 尺度를 벗어난 非人間の인 住居團地가 造成되고 있다.

이것은 土地의 효율적인 利用과 경제적인 理由를 經營者에 의하여 高層의 숲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群은 많은 問題를 內包하고 있으니 이것들이 建築家の 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책감을 갖게 된다.

한편 農村聚落構造 改善事業인 새마을事業을 추진하므로서 西歐의 農村처럼 美觀한 農村聚落을 建設하려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聚落이 改造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事業에서 建築家가 어느정도 參與하여 우리의 傳統文化를 繼承해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約 100餘萬戶의 住宅이 不足한 實情이고 1991年까지 住宅補給率을 90%로 올리기 위하여는 現在의 住宅在庫인 約 5,000,000餘萬戶를 더 建設하여야 하기로 되어있다. 그와같은 莫大한 量의 住宅을 建設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技術과 工法의 開發이 要請된다.

即 組立式工法의 開發로 低廉하고 質이 좋은 住宅을 大量으로 建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近來에 海外建設붐으로 인하여 많은 建設人力이 海外에 進出하고 있는데 그중 과연 몇 %가 設計用役에 종사하는가 그리고 大型化하고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設計用役에서 우리는 뒤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된다.

油類波動이 있은後 世界各國에서는 太陽熱을 利用할수 있는 住宅과 建物을 設計하려 努力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研究를 거듭하고 있는데 建築物이 아름다우면서도 太陽熱을 最大限으로 利用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建築家の 任務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5000年의 찬란한 文化를 자랑하며 많은 文化財를 保存하고 있는것을 긍지로 삼고 있으며, 民家도 研究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民家の 研究에 뜻을 두고 끈질기게 研究하는 建築家는 그리 많지가 않다.

近來에 와서 많은 建築物이 高層化되는데 따라 構造, 工法등을 전자계산기로 解決하고 努力하고 있고 建物의 設計도 電子計算器에 의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建築家들도 힘을 기우려야할 分野라고 생각된다.

都市內에 雨後竹荀처럼 많은 建物이 세워지고 있으나, 都市의 綜合計劃下에 都市設計의 技法에 順應하고 있지 않은 것도 가끔 볼 수 있고 바로 이웃하는 建物과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首都인 서울이 건잡을 수 없이 肥大하게 되는데 따르는 대책으로서 신도시가 계획될 수도 있겠다. 이와같은 도시가 건설될 때에 건축가들의 業務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形態의 建物을 設計하여야 할 것인가?

前述한 바와 같이 建築家에게 주어지는 課業은 莫重하다. 이와같이 重要한 任務를 遂行할 建築家를 어떤 方法으로 輩出할 것인가 하는것이 큰 關心事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大部分의 建築學科가 工科大學에 屬하고 있으며 建築技術者를 養成하고 있고 極히 적은 數의 建築科의 卒業生이 建築家를 指向한 設計業務에 從事하게 된다.

過去에는 徒弟制度에 의하여 오랜동안의 修練과 經驗을 쌓은 후 비로서 建築家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學校에서 短期間에 教育을 받은 후 一定期間의 修練을 거쳐서 試驗에 合格되어야 建築家로서 일할수 있는 資格을 얻게 된다.

몇몇 大學에서는 建築技術者의 養成과정에서 建築家를 輩出하는 것 보다는 순전한 建築家를 養成할 目的으로 교과목을 마련한 科를 따로 設置한 경우도 있다.

많은 建築家들이 建築大學을 設立할 것을 主張하는 것은 建築이 綜合的인 學問으로 韓國의 建築文化를 發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첫단계의 試圖로서 建

築工學科를 建築學科와 工學科로 分離한 大學도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 같다. 果敢하게 建築大學 設立의 段階로서 建築學部를 設置 運營해보는 것이 좋겠다.

醫科大學에서처럼 建築科에서도 修練과정을 대학부설 研究所에서 거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나 制約條件이 풀려야겠고 建築設計事務所를 運營하는 建築家와 유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生活의 餘裕가 생기는데 따라 傳統問題가 거론되고 古典美를 追求하려는 움직임이 活潑해지고 있다. 그와같은 움직임을 올바른 方向으로 유도할 수 있는 建築家의 役割이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우리의 建築文化를 계승할 것인가? 高度의 科學化時代에서 System building으로 追求와 建築의 藝術性과의 關係를 어떻게 풀이하며 展開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것은 우리들 몸에 배어있는 우리나라대로의 建築哲學에 바탕을 두고 複雜한 問題를 單純하게 풀어나가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過去에는 大家의 經驗과 靈感에 의하여 問題를 풀어나가는 Black box system에 의존하였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分析하므로써 보편타당성 있는 解答을 求할 수 있는 glass box system을 適用하는 時代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建築은 綜合的인 科學인 만큼 그 關聯分野가 대단히 많다. 特히 都市計劃, 都市設計 및 造景分野는 建築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어서 都市에 建築物이 세워지는 경우 都市計劃에서부터 실마리를 짚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Walter gropius가 主張한바와 같이 우리의 建設의 目標을 人間關係의 確立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高度文明社會에서 잃어버려지기 쉬운 人間關係를 기술적, 경제적 면에서 追求되어야겠고 그 任務가 建築家에게 주어졌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高度로 發達한 科學文明에 힘입어 建物を 大型化하고 人間の 存在가 等한시된 狀態의 環境을 創造하고 있어 結果的으로는 人間の 心理를 억압하고 있어 社會的인 問題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祖上은 모름지기 自然과 調和를 이루는 建築空間을 創造하여 世界的으로 評價를 받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文明의 이기를 利用하여 工業化라는 美名아래 自然을 훼손하는 것이 建築家의 손에 의하여 行하여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自然에 順應하여 建物を 自然과 調和시킬수 있는 技術을 터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氣候條件을 理解하고 分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建築家의 社會的地位에 對하여 論할 때 우리는 醫師나 弁護士같은 地位에 있다고 자처하지만 實質的인 면에서 보면 그와 같은 立場에 있지 못하는것 같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것 中の 하나의 要因으로는 社會的인 歷史的인 背景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도 있겠으나 醫師들 처럼 專門領域別로 分化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倫理的 觀念이 貧弱한데에도 原因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建築家의 權益을 위하여 結成된 團體의 存在가 너무도 微弱하다고 생각된다. 3個의 團體가 힘을 합하여 뚜렷한 目標下에 強力하게 일을 推進하여야 할 時期라고 생각된다.

특히 建設業이 海外에서 높이 評價를 받고있는 계기가 마련된것 같다. 即 國際建築家團體에 參與하는 일, 國際현상설계에 應募하는 일, 國內의 建築活動을 外國에 소개하는 雜誌를 發刊하는 일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이 있다.

國際社會에서 活躍할 수 있는 設計分野의 組織이 綜合엔지니어링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나 國際社會의 競爭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組織으로 強化할 것은 勿論, 韓國인 實體(identity)를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相對國의 여러가지 條件을 理解하고 分析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事實도 깊이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即 文化財保護를 위하여는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몇몇 뜻있는 建築家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民家は 極少數의 建築家가 研究하고 있을 뿐이어서 좀더 많은 建築家가 研究에 參與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 그리고 郷校나 聚落構造의 研究도 遂行되어야 할 建築家의 課題로 되어있다.

農村聚落構造改善事業의 一環으로 內務部와 建設部가 協力하여 標準住宅圖面에 의하여 많은 農村住宅이 建設되고 있다. 이들 設計圖에서는 한국의 傳統的인 固有美를 살리기 위하여 合角지붕이나 모임지붕으로 그려져 있어 建築家들은 周邊地勢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農民들은 진부한 것을 그들에게 強要하는것 같아서 새롭고 참신한 形態의 住宅을 要求하고 있다. 그렇다면 農民이 要求하는 形態와 建築家가 設計하는 圖面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상한 形態의 집들이 建築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要求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그들을 理解하며 그들이 바라는 方向에서 建築的으로 合當한 形態를 찾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오랜동안 침체되었던 農村을 생각하며 그때 당시보다 좋은 住宅을 設計하려 하나 그들은 약진하고 있고 비약하여 都市民 住宅을 農村에 세우려 하는 意志가 보이는 것이다.

그와같은 要求條件은 비단 農村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理解하고 建築的으로 表現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와같은 要求條件은 비단 農村에서 뿐만 아니라 都市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理解하고 建築的으로 表現하여야 할 것이다.

35 p 4 繼續